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7.07(금) ~ 2023.07.13(목)

제공일시 2023 07 2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7.07(금) ~ 2023.07.13(목)

제공일시 2023 07 2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프랑스, 10월부터 의류 수선에 최대 3.5만원 환경 장려금 지급

- 프랑스가 환경 보호와 수선 사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10월부터 옷과 신발에 '수선 장려금'을 지급함
소비자들은 신발 수선에 7유로(약 1만원), 의류 수선에 10~25유로(약 1만4000~3만5000원)를 청구할 수 있음
- 당국은 이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2023~2028년 1억5400만 유로(약 2200억원)를 할당했으며, 정부는 2027년까지 가전제품 수리 보조금 제도에 4억1000만 유로(약 5800억원)를 투자할 계획임
- 프랑스는 지난해 12월부터 보증이 만료된 가전제품에 대해 수리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도입했는데, 당시 당국은 이 정책의 목표가 가전제품을 버리며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드는 대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장려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뉴스1, 2023.07.12) 김예슬 기자

2. 유럽 의회 투표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자연복원법

- 자연서식지와 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하는 EU의 '자연복원법'이 의회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아 의회와 이사회 협상단계로 진행하기로 했음
- 자연복원법은 EU 생물다양성 전략의 핵심요소를 형성하는 법안이지만 지난달 EU 환경위원회 투표가 과반수에 도달하지 못했고, 법안 거부안 동의가 의회 전체 투표로 올라 법안의 미래가 불확실했음
-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은 이번 법안이 농업과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수력과 바이오매스 용량을 줄인다고 반대해왔음
- 하지만 거부권은 312대 324로 부결되었으므로, 법안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임

(ESGToday, 2023.07.12) Mark Segal 기자

3. 일본, UAE의 탈탄소화 기술 협력... "UAE 활발한 투자 유치 염두"

- 일본과 아랍에미리트(UAE) 양국 정부가 UAE의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협력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음
- 이달 중순 UAE에서 열리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기술협력을 협의할 전망이다
- 이는 일본의 스타트업(신생기업)이 UAE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혁신이나 신규 사업화에 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UAE로부터 활발한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목적이라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 UAE는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 실질적으로 제로화할 계획으로, 올해 제28차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주최하여 일본의 기술을 활용해 탈탄소화의 대치를 추진해나갈 계획임

(뉴스1, 2023.07.11) 박준호 기자

1. 한전, '직접 PPA' 요금제 도입 무기한 유예...산업계 반발에 보완 검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직접 전력거래계약(PPA)' 요금제 시행이 무기한 유예됐음
- PPA 요금제가 산업용 전력 요금제보다 비싸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산업계 주장 때문임
- 한전이 유예기간을 못박지 않은 것은 제도 시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며, 한전의 이번 결정으로 직접 PPA 요금제 시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따름.
- 이에 따라, 직접 PPA를 통해 가격이 가장 싼 경부하 요금만 취사 사용하는 등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새 과제로 부상했음

(전자신문, 2023.07.10) 최훈, 변상근 기자

2. 화합물 전력반도체 기술개발사업, 국가 R&D 예타 통과(종합)

- 미래 반도체 먹거리로 꼽히는 차세대 전력반도체를 개발하는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이 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음
- 이 사업은 상용화 소자, 전력변환장치, 구동회로 등 핵심 요소 기술을 개발해, 화합물 전력반도체 분야 선도국과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음
- 산업부는 이번 사업으로 국내 전기차-에너지 산업 수요와 연계한 소자 및 전력변환장치(모듈) 상용화 기술 개발, 구동회로(파워IC) 기술 개발, 화합물 전력반도체 핵심 소재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소재-소자-IC-모듈'로 이어지는 전력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의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연합뉴스, 2023.07.13) 차대운, 조승환 기자

3. 전경련 “韓, 반도체-소재 주력산업에서 美·中·日과 경쟁 심화”

- 반도체·소재·자본재(생산과정에 쓰이는 기계·장비) 같은 한국의 주요 산업에서 미국, 일본, 중국과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국내 상장기업의 산업군별 시가총액 비중과 주요 5국(G5,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중국의 산업별 경합 수준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음
-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의 시가총액 분포는 기술 하드웨어 및 장비(23.7%) 산업이 가장 높았으며, 기계·장비·부품 등 자본재(15.2%), 소재(9.8%), 제약·생명공학·생명과학(8.4%),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6%) 등 순이 뒤를 이었음
- 한국은 총 7개 산업군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음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수치가 1보다 크면 해당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지닌 것으로 평가하며, 한국의 주력 산업 중 기술 하드웨어 및 장비(4.02), 자동차 및 부품(2.09), 소재(1.92), 자본재(1.77), 반도체 및 반도체장비(1.29),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1.15), 제약·생명공학·생명과학(1.06) 등이 비교우위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됐음

(조선일보, 2023.07.13) 이정규 기자

1. 암스툼, 유럽 전력 수요 80% 총당하는 태양광 계약 체결

- 철도 운송 제조업체 암스툼은 스페인 안달루시아 태양광 발전소에서 연간 160GWh를 조달하는 10년 PPA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 발전소는 2025년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암스툼은 이 협정의 에너지가 유럽에서 회사 전력 소비량의 80%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계약은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협력해 이뤄졌으며,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암스툼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파악, 협상, 조달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ESGToday, 2023.07.11) Emily Fowler 기자

2. TCFD 기후공시 경과 모니터링 책임, IFRS가 넘겨받는다

- IFRS재단의 ISSB는 FSB의 요청에 따라 내년부터 기후 관련 공시 경과 모니터링 책임을 FSB태스크포스(TCFD)로부터 넘겨받게 됨
- 책임 이전은 ISSB의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통합에 중요한 단계를 나타냄
- FSB는 새로운 ISSB 표준이 TCFD 작업의 정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며, FSB는 “TCFD의 수년 간의 작업과 전 세계 기후 관련 공시 개선에 대한 주요 기여에 감사한다”고 밝혔으며, TCFD의 기업 기후 모니터링 및 보고작업이 ISSB에 인계될 것을 요청했음
- 2024년부터 책임을 ISSB로 이전함으로써, 공시 표준 통합이 ISSB로 마무리되는 수순임

(ESGToday, 2023.07.10) Mark Segal 기자

3. 엑손모빌, 49억달러 규모 탄소포집 및 활용 기업 인수 계약

- 엑손모빌은 49억 달러 규모의 탄소 포집 및 활용 에너지 기업 덴버리(Denbury) 인수 계약을 발표했다
- 덴버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1300마일 CO2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소유 및 운영하고 있으며, 탄소 격리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음
- 이번 계약은 엑손모빌이 운영상 CO2를 줄이기 위해 6년간 15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임
- 엑손모빌은 2021년에도 탄소포집 및 저장, 수소 및 바이오연료 분야에 초점을 맞춘 저탄소 솔루션 사업을 시작한 바 있음

(ESGToday, 2023.07.13) Mark Segal 기자

1. 포스코인터, 2035년까지 '126만t 청정수소' 인프라 구축한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천과 광양, 포항을 중심으로 2035년까지 총 126만t의 청정수소 공급 인프라를 구축함
- 2030년까지 기가와트(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권을 2개 이상, 총 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권을 확보하여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사업 회사로 도약한다는 목표도 세웠음
- 청정수소 공급 인프라를 지역별로 보면, 2035년까지 인천에 자사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혼소용 수소 인프라를 구축해 청정수소 36만t을 공급함
- 포항에는 수소환원제철인 '하이렉스'(HyREX)용 수소 인프라를 구축해 청정수소 36만t을, 광양에는 LNG·수소·암모니아 복합터미널을 세워 청정수소 54만t을 공급할 계획임

(연합뉴스, 2023.07.07) 이슬기 기자
(뉴스스, 2023.07.07) 이창우 기자

2. SK에코플랜트, 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서 상장 준비 중...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아”

- 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의 전환을 강조해온 SK에코플랜트가 기업 상장을 준비하고 있음
- SK에코플랜트가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며, 앞서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3월 21일 국내외 증권사에 상장 입찰제안 요청서(RFP)를 발송했음
-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인 SK오션플랜트의 시가총액 규모는 지난 7일 종가 2만850원을 기준으로, 1조1100억원 수준이며, 업계에서는 SK에코플랜트의 시가총액을 5조원~6조원부터 최대 10조원까지 추정하고 있음
-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IPO 공개 목적에는 건설사에서 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전환한데 대한 투자 지원 확보도 있음

(한국정경신문, 2023.07.11) 하재인 기자

3. LG전자, '테슬라 규격' 적용해 美전기차 충전시장 공략한다

- 내년 2분기 미국 전기차 충전 시장 진출을 노리는 LG전자가 테슬라의 충전 규격을 적용함
- LG전자 장익환 BS본부장은 10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LG전자 미래비전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 현재 전기차 충전 표준과 관련해 다양한 규격이 존재하지만, 최근 포드와 GM이 테슬라의 규격을 채택했으며, 이후 많은 기업이 테슬라 규격을 채택하거나 검토하는 추세임
- 이 같은 상황에서 2030년 1조 원 규모로 전기차 충전 사업을 키우려는 LG전자도 '글로벌 대세'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풀이됨
- LG전자는 이어 내년 하반기 유럽과 아시아의 전기차 충전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임

(CBS노컷뉴스, 2023.07.12) 장성주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7.07(금) ~ 2023.07.13(목)

제공일시 2023 07 2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맥킨지, 탈탄소 기술집약도 높아 공급망 수요 기록적일 듯...4조달러 투자해야

(인맥트론, 2023.07.12) 홍명표 기자

-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 맥킨지(McKinsey & Company)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금속과 원자재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망을 확장하려면 2030년까지 최대 4조달러(약 5100조원)의 투자가 필요함
- 이 보고서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공급망의 역할이 강조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체 기술이 기존 기술보다 집약도가 더 높은 것 또한 문제임
- 예를 들어, 기가와트(GW)당 태양광의 전지(PV) 재료 집약도는 기존 기술의 1.4배인 반면 육상 풍력은 재료 집약도가 2.4배, 해상 풍력은 6.3배임. 마찬가지로 순수 전기차는 비슷한 내연 기관 자동차보다 20% 더 무겁거나 재료가 더 필요할 수 있음
- 탈탄소화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재료가 쓰이고 있어서, 보고서는 많은 재료의 수요가 기록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음
- 특히 이번 연구에서 검토한 다양한 시나리오에서는 많은 주요 원자재 부족이 예상됨. 맥킨지는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및 흑연을 포함한 배터리 재료뿐만 아니라, 전기 모터 및 풍력 터빈 구동장치에 사용되는 자석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면서 "반도체, 전해조 등 핵심 재료도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 또한, 맥킨지 보고서는 중국의 희토류 원소와 인도네시아의 니켈 등 원자재가 지역적으로 집중된 것 또한 잠재적으로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보고서는 이러한 핵심 재료와 광물에 필요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채광, 정제, 제련을 포함한 재료 공급망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자본 지출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탐사, 신규 및 진행 중인 프로젝트 등까지 포함하면 3조~4조달러(약 3893~5191조원)가 들 것으로 예측했음
- 보고서는 이러한 투자 외에도 전문 광산 전문가를 6만명까지 늘려야 하고 200~500기가와트(GW)의 추가 에너지도 공급해야 한다고 추정했음
- 재료 공급망, 인력 및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 외에도 보고서는 재료 격차를 해소할 몇 가지 조언을 덧붙였다
- 이에 대해 ▲제약이 덜한 재료에 집중하거나 의존하고 ▲재료 혁신 및 재활용 관행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허가 프로세스 간소화 ▲대체 기술에 대한 수요 촉진과 같은 정책을 권장했음
- 또 ▲공급 부문에서는 이미 발표된 프로젝트를 시기 적절하게 확장하고 ▲수요 부문에서는 다운스트림 산업은 덜 재료 집약적이거나 공급이 덜 제한적인 재료로 수요 패턴을 전환하고 ▲재료 혁신과 획기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하며 ▲정책적으로는 새로운 개발에 대한 허가 절차를 합리화해서 공급확대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맥킨지의 수석 파트너인 미셸 반 회(Michel Van Hoey)는 "기후 목표는 넷제로로의 전환이 재료 전환을 촉발할 정도로 글로벌 재료 가치 사슬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